

# 住民化합 한마당 잔치마련

## 주공2단지 부녀회, 다문화가정 지원 誠金 모금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주공2단지(송천마을) 부녀회는 주민화합잔치에서 모은 성금을 평화의집에 전달했다.



노래자랑에서는 고등학교때부터 가수가 꿈이었던 김애미(오른쪽에서 두 번째)씨가 미친 사랑의 노래를 불러 대상을 차지했다.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주공2단지(송천마을) 부녀회(회장 신형숙)는 6월12일과 13일 이틀간 아파트 단지내에서 주민화합잔치를 마련했다.

이번 행사는 주민화합을 위해 노래자랑과 홀라후프대회, 디스코 경연대회를 실시하고 한국사회에

서 잘 적응하지 못하는 다문화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성금을 모금하기도 했다.

30여개 업체가 농산품, 공산품, 생필품, 먹거리 장터를 마련하고 1천184세대 아파트 주민 5천여명이 화합의 아파트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주민화합 프로그램으로 모범 주민 2명에게 선물을 전달하고 청소, 경비,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에게도 선물을 전달해 그간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신형숙 부녀회 총무는 "소흘읍 화합의 아파트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여러 가지 편의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고 주민들의 경호요청사항이 타의 모범이 되고 있는 아파트"라고 밝혔다.

주민화합을 위해 실시한 노래자랑에서는 고등학교때부터 가수가 꿈이었던 김애미(36·주부)씨가 미친 사랑의 노래를 불러 대상을 차지했다.

한편, 행사를 마치고 행사장에서 모금한 성금 46만5천850원을 6월16일 소흘읍사무소에서 다문화가정지원센터인 평화의 집(소장 박진석 목사)에 전달해 어려운 다문화가정을 위해 써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송우리주공2단지아파트는 2005년4월4일 입주를 시작했으며 현재 이 아파트 공동체를 이끌어 가고 있는 사람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 ▶아파트 관리소장 남은경 ▶회장 영형진 ▶총무 문명순 ▶감사 박귀용 ▶감사 김미정 ▶홍보위원 장 고성화 ▶기술위원장 김상현 ▶이사 이혜숙 ▶이사 정금숙 ▶이사 김병갑 ▶이사 강막내 ▶고문 변명구(이상 동대표회) ▶부녀회장 신형숙 ▶부회장 김원영 ▶김경민 ▶김양숙 ▶총무 이혜심 ▶감사 이경미 ▶감사 강분순 ▶감사 김진이(이상 부녀회) ▶노인회장 최도철 ▶부회장 노동식 ▶감사 이교직 ▶총무 남영일(이상 노인회) ▶이장 우원철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끈끈한 情을 바탕으로 家族的 분위기

## 포천사랑마라톤클럽, 운동+지역봉사 위해 한마음

포천사랑마라톤클럽(회장 최종성·사진)은 2006년7월13일 창립하여 현재 48명의 회원이 마라톤에 대한 열정과 지역사랑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매주 일요일 오전 6시(동절기 7시)부터 청성공원이나 종합운동장에 모여 이재봉(포천중학교 교사) 훈련부장의 지도하에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개별 스케줄을 관리하고 있다.

특히 개인별 실력에 따라 맞춤형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초급, 중급, 상급반으로 구분하고 있다. 훈련 후에는 간단한 식사를 겸한 발전적인 토론의 장을 운영하고 있다.



최종성 회장은 "운영진과 회원 모두가 건강한 클럽이 될 수 있도록 공동으로 노력하는 분위기가 확산 및 끈끈한 정을 바탕으로 한 가족적인 분위기가 포천사랑마라톤클럽의 장점"이라며 "건강한 밥방들과 회원 상호간의 존중과 배려를 통한 사회봉사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포천사랑마라톤클럽은 관내 어려운 학생들에게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난해 4명에게

다. 포천시 최고기록 수립은 이상용 회원이 2시간 40분대에 들어왔고 정현 회원은 메이저 3개 대회에서 sub-3를 달성하기도 했다.

또한 회원들은 경기도체전, 도지사기 마라톤대회, 각종 생활체육, 지자체 주관 마라톤대회 등에 출전해 상위 입상하여 포천시 육상발전은 물론 포천시의 위상을 제고하기도 했다.

최 회장은 "즐거움 마음으로 땀방울을 같이 흘리며 작지만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아름다운 동행자를 환영한다"며 많은 시민의 참여를 당부했다.

마라톤에 대한 열정과 지역사랑의 마음을 가진 시민은 이선건 부회장(031-535-2948)에게 문의하거나 <http://cafe.naver.com/werun>로 문의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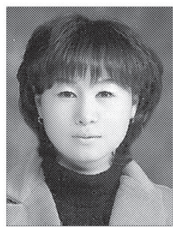
포천사랑마라톤클럽 주요 임원 현황은 다음과 같다.

- ▶고문 양순모 ▶회장 최종성 ▶부회장 이선건 ▶부회장 임명재 ▶감사 은동훈 ▶총무 이재봉 ▶훈련부장 이재봉 ▶카페지기 이광래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자유기고

## 진정한 헌신



이미정 주부회장이던 신촌연수부장

하루 하루가 살아가기 힘들다 고 옆도 돌아보지 못하는 현실에서도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는 분이 있다.

포천시 선단동에 위치한 작은 교회의 목회자이신 이광의 목사님. 솟아나는 샘물교회라는 이름답게 헌신과 사랑이 솟아나고 있었다. 누구나 다하는 일이고, 뭐 특별히 하는 것도 없는데 기사는 무슨 기사냐며 겸손한 웃음에 속스러움을 더하셨다.

이 목사님을 처음 어렵듯이 본 건 작년 10월 어느 학교의 축제에서였다. 솟아나는 샘물교회라고 적힌 흰 봉투에 찬조금을 넣어 회사하셨다. 이 교회 목사님이 학교와 무슨 연관이 있나 싶었는데 올 6월에도 축제 때 또 찬조를 하셨다.

어떤 연유인가 싶어 알아 봤더니 내 자녀가 다니는 학교라고 하셨다. 손본이라는 성도의 자녀가 이 학교의 학생이었다. 한 성도 한 성도가 얼마나 사랑스러우시며 한 집안의 경제사도 아닌데, 학교의 축제행사라고 직접 다 나가신 것이다.

손본이씨는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꼭 찾아와 달라고 하였다. 군입대할 자녀의 면회도 일일이 다니시며, 당시 사려비도 모두 교회 성도를 위하여 사용하신다고 한다.

대접 받으셔야 할 분이 직접 음식을 만들어 성도들을 보살피며 대접을 하신다고 한다. 성도가 감기만 걸려도 약을 사다 주고 영양제도 직접 구입해 주시는 분으로 아주 작은 일에도 세심히 신경을 써 주신다고도 한다.

이러한 일은 목회자라면 누구나 하는 일 아니냐며 반문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요즘 목사님들 얼마나 바쁘신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 기도해 주시는지 이런 것만으로도 작은 일까지 신경 써 주시는 분은 흔치 않다.

한방의학의 달란트가 있어 류마티즘으로 고생하는 성도가 치료를 받고, 허리가 삐끗해서 꼼짝도 못하는 분에게 침을 놓아 고쳐주고, 어떤 분은 목사님께 병 고침을 받고 은혜를 받아 불편한 한 쪽 다리에도 불구하고 새벽기도를 빠짐없이 나오시는 분도 있다고 한다.

세창아파트에 사시는 어느 할아버지께서는 목사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 먼저 돌아가시면 솟아나는 샘물교회 간판을 하겠다고 한다.

이광의 목사님은 덕계리에 1억3천여만원의 자비로 예bene셀이라는 군 교회를 지어 헌납할

을 시작으로 지금도 군 선교에 주력을 하고 계신다.

지금 무엇보다도 자녀들에게 버림받고 소외된 노인분들을 위해 음식 봉사를 하고 계신다. 자자리에서부터 설운동까지 소외되고 어려운 분들이 너무도 많아 안타깝다며 대한민국의 현 얼굴을 본다고 하셨다.

자식들이 있음에도 자식들에게 누가 될까봐 자식이 없다고 하는 그런 부모의 마음을... 그 자녀들은 알까? 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있음으로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는 것을... 그 자녀들은 알까? 답신을 버린 자식들을 위하여 허물을 감싸주시는 부모님 사랑에 반의 반 만이라도 자녀들이 생각한다면 헌신짝 같은 인생은 사라지지 않을까?

이광의 목사님은 이러한 분들을 위한 요원함을 짓는 것이 앞으로의 소망이자 목표라고 하셨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이다.' (시편 116편 2절). 이 말씀을 가장 좋아하신다는 목사님의 계획이 하루 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 양철중 이동면장 퇴임식



양철중 이동면장의 퇴임식이 6월11일 이동교육문화센터에서 개최됐다.

양철중 이동면장의 퇴임식이 6월 11일 오전 11시 이동교육문화센터에서 사정원 포천시장, 이강림 의장, 이종호 의원, 김성남 의원, 정종근 의원, 김영자 의원, 김종현 의원, 실과 소장과 가족 친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양철중 면장은 1969년 영동면에서 공직에 입문해 새마을, 재무, 건설, 환경 부서를 거쳐 1996년 사무관으로 승진,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을 역임하고 영중, 화현, 영북, 일동, 군내면장을 거친 현장 행정통으로 누구보다 포천시 행정을 꿰뚫고 있는 공직자로 후배 공직자들로부터 존경을 받아 왔다.

2005년5월 이동면장으로 부임한 양 면장은 주민간의 화합과 친절공무원 이미지 제고에 힘써 왔다.

양 면장은 그동안 국무총리, 경기도지사 표창 등 많은 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대한민국 정부는 녹조근정 훈장을 수여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목회 단상



## 정직의 힘



김창성 내촌감리교회 목사

영국 격언에 이런 재미있는 말이 있다. "하루만 행복하려면 이발소에 가라. 1주일만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라. 한달만 행복하려면 말(馬)을 사라. 일년쯤 행복하려면 집을 사라. 그러나 평생 행복하려면 정직한 인간이 되라"

이것은 물론 유머에 속하거나 과장된 표현이다. 그러나 이 격언이 말하려는 뜻은 분명하다. 흔히 사람들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것에는 제한이 있다. 정말 행복해지는 조건은 외형적으로 누구보다 포천시 행정을 꿰뚫고 있는 공직자로 후배 공직자들로부터 존경을 받아 왔다.

작품의 정치를 보면서 진실과 정직은 용기의 사람만 만든다. 아닌 것을 그렇다고 만들어 가는 행태는 국민들을 분노케 만들고 있다. 믿어 주는 인정하는

문화가 정착됐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한번 재미 봤으면 꼭 하지 두 번 재미 두 번 속을 국민은 아니다.

나의 짧은 인생 경험으로도 마지막 승부는 정직에 달려있음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다. 재간(才幹)은 많이 없고 머리는 그다지 우수하지 못해도 정직한 사람이 마지막에는 이긴다.

그래서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라는 말이 있다. 결할기, 걸치레, 번지레함, 탈 속의 신사, 과장, 실속 없는 자기 표현, 허풍에서 뻘도는 달변(達辯), 과잉 광고 등은 불완전 드러나 오히려 그 사람을 불행의 수렁으로 몰아 넣는다.

속임수는 며칠은 가지만 몇 년은 갈 수 없다. 그러나 정직은 처음에는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마지막에는 이긴다.

정직은 사람과도 통한다 내가 아내에게 혹은 친구에게 일

마음 정직한 가는 자신이 알 것이다.

그리고 자기의 사랑은 그 정직만큼의 분량이라고 생각하면 거의 틀림이 없다.

정직은 신앙(信仰)과 통한다. 하나님께 얼마나 솔직하고 정직한가가 자신의 신앙에 대한 척도(尺度)가 된다. 신(神)은 우선 육안(肉眼)에 안보이기 때문에 마치 신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신앙이 있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다. 신에게 정직한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이다. 그래서 성서는 이렇게 권면하신다.

아고보서 1장22절 "너희는 도(道)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교훈하신다.

문의) 031-532-2489

# 고객이 만족할수 있는 기술력과 서비스 제공



▲ 고은빌딩 전경

교육청소방공사(포천교육청)



▲ 고은직업학교 전경

무정전작업(한전 포천지점)



▲ 고은직업학교 전경

학교신축 전기공사(화성·제암초등학교)

**취급공사**

- 한전
- 공장
- 학교·관공서
- APT
- 병원
- 가로등·신호등
- 빌딩
- 호텔
- 인테리어
- 기계소방
- 전기소방
- 상가 및 기타



▲ 고은빌딩 전경

무정전작업(한전 포천지점)



▲ 고은빌딩 전경

학교신축 전기공사(화성·제암초등학교)



▲ 고은빌딩 전경

가로등 신설공사(파주 교하-조리간 4차선 10.29km)



▲ 고은빌딩 전경

교육청소방공사(포천교육청)



▲ 고은빌딩 전경

무정전작업(한전 포천지점)



▲ 고은빌딩 전경

학교신축 전기공사(화성·제암초등학교)



▲ 고은빌딩 전경

교육청소방공사(포천교육청)



▲ 고은빌딩 전경

무정전작업(한전 포천지점)



▲ 고은빌딩 전경

학교신축 전기공사(화성·제암초등학교)